

## 제 2 회 중한 성장과 지사 회의에서의 연설 (대리초고작성)

신사, 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섬서성 인민정부를 대표해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또한 이번 회의의 개최에 대해서도 축하를 드립니다.

섬서성은 중화민족과 화하문화의 중요한 발상지 중 하나이며 고대 실크로드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섬서성은 중국 지리적 판도에서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우월한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자원이 아주 많습니다. 성소재지인 서안은 옛날에 “장안”이라 불리웠는데 이는 고대 로마, 카이로, 아테네와 함께 세계 4 대 문명고도시로 칭하고 있으며 주, 진, 한, 당 등 13 개 왕조가 연이어 여기를 수도로 택했으며 그 시간은 1180 년에 달했습니다. 황제릉, 병마용, 연안보탑, 진령 등은 중화 문명, 중국 혁명, 중화 지리의 자연적 표지이자 정신적 상징으로 되었습니다. 최근, 전성에 1 개 국가급 문화산업시범단지, 11 개 국가급 문화산업시범기지, 8 개 국가애니메이션인정업체, 41 개 성급 문화산업시범기지를 구축하여 종류가 비교적 완벽히

갖추어지고 산업 사슬이 완전한 문화산업시스템이 기본적으로 형성되었으며; 전성에 A 급 관광구가 418 개에 달하는데 그 중 5A 급 8 개, 4A 급이 104 개입니다. 2018 년의 지난 3 분기, 전성의 해내외 관광객 접대 인원수가 5. 24 억명에 달했는데 동기비 21. 86% 증가했고; 총 관광수익은 4965. 33 억위안에 달했으며 동기비 29. 09% 증가했습니다. 그 중 해외 관광객 접대 인원수가 298. 50 만명, 국제 관광수익이 21. 64 억달러에 달했으며 동기비 각각 17. 71%와 15. 89% 증가했습니다. 최근 몇년동안, 관광산업 규모가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으며 관광업의 국민경제에 대한 공도 끊임없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통계에 의하면 2017 년 섬서성 관광업의 직접증가치와 종합증가치가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0. 02%와 8. 39%에 달했으며 관광취업률은 전성 취업 총 인원수의 12. 33%를 차지했습니다.

섬서성은 관광산업의 문화에 내포된 의미를 끊임없이 발굴하면서 일련의 특색이 선명한 문화관광 명품을 출시했습니다. 병마용, 황제릉, 서안성벽 등을 비롯한 문박류 관광 제품을 내놓았고 한양릉, 건릉을 비롯한 한당제릉 문화관광 제품을 출시했으며 또한 법문사를 비롯한 종교류 관광 제품, 대당불야성 등을 비롯한 문화관광 종합체, 대명궁 등을 비롯한 문화재공원, 연안혁명기념지 등을 비롯한

홍색문화관광 프로젝트, 화산 등을 비롯한 산악문화관광 프로젝트, 온천, 스키장을 비롯한 레저체험 문화관광 프로젝트, 《장한가》《몽장안——대당영빈성례》를 비롯한 문화관광 연예 프로젝트, 예천현 원가촌, 당가촌 등을 비롯한 민속문화와 고진고촌 문화관광 프로젝트, 실크로드 국제예술절, 서안 실크로드 국제관광박람회, 천명 외국관광객의 섬서성 관광 등을 비롯한 문화관광 활동 프로젝트, 섬문투관광상품연구개발센터를 비롯한 문창관광상품기지를 건설함으로써 문화 관광제품과 코스가 “문화섬서” 관광 브랜드의 주요 특색과 산업 지주가 되어 시민들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욕구를 끊임없이 만족시켜주고 있으며 “문화섬서” 브랜드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점점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제출한 “일대일로”의 위대한 제의는 섬서와 한국을 긴밀히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1994년 11월, 서안시와 경주시가 본격적인 자매관계를 맺으면서 오늘까지 섬서성 및 각 지방 도시가 한국의 지방과 자매관계를 맺은 도시가 10쌍(섬서성과 경상북도, 섬서성과 세종시, 서안시와 경주시, 서안시와 진주시, 함양시와 경상북도 의성군, 함양시와 경상북도 함양군, 동천시와 경상북도 봉화군, 위남시와 경상북도 구미시, 상낙시와 전라북도 진안군,

보계시와 한국 전라남도 예천군) 이 되고 있으며 현재 연락 중인 도시가 7 쌍 (성서성과 경상남도, 성서성과 부산시, 성서성과 충청북도, 성서성과 제주도, 한중시와 경상남도 창녕군, 위남시와 경상남도 창원시, 안강시와 전라북도 부안군) 이 됩니다.

최근, 서안은 한국의 서울, 부산, 제주 등 도시 사이의 직통 항로를 개통했고 매주 총 20 개의 항공편이 양국을 왕복하고 있어 왕래가 더욱 편리해지고 있고 문화관광교류도 점점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한국관광발전국은 서안에 사무소를 설립했는데 이는 성서성에 설립한 최초의 경외 정부측의 관광사무기구입니다. 한국관광발전국, 경기도, 부산시 등 기구와 지역이 연이어 성서에 와서 관광설명회를 개최했고 한국 EBS 방송국, 교육방송국 등 매체도 성서에 와서 시찰, 민정을 수집하면서 한국 시민들에게 성서성을 소개했습니다. 성서성은 관련 기구를 적극 조직해서 중일한관광부장회의, 중일한문화부장회의, 동아지방정부회의, 중일한연학관광세미나 등에 참가하도록 해서 고위 관리층 대화를 강화하고 업내 교류를 추진시키고 있습니다. 해마다 개최되는 실크로드예술절, 서안 실크로드 국제관광박람회는 수많은 한국문화예술단체, 예술가, 관광기구를 초청하고 있고 풍부한 문화관광 전시공연은 성서성 시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섬서성은 관광업체를 조직해서 한국서울국제관광전에 참가하고 한국에서의 순회 판촉을 실시했으며 한국에서 광고 홍보를 하고 또 한국의 대형 여행사와 협력함으로써 한국 관광계와의 교류와 협력을 끊임없이 강화해 왔습니다. 서안과 한국 인천, 일본 도쿄도 도시마구는 함께 2019년 “동아 문화의 도시” 칭호를 수여받았으며 다음 해에 일련의 문화예술 교류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국은 섬서성의 중요한 관광객 배출국으로서 금년 지난 3분기에 총 40.53만명이 섬서성을 방문했는데 이는 동기비 79.23% 증가함으로써 섬서성 입국 관광객 배출국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또한 섬서성 관광객의 가장 선호하는 관광 목적지 중 하나로서 해마다 대량의 섬서성 시민들이 한국을 찾아 관광 유람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은 양국의 우정을 촉진시키고 양국의 민간 왕래를 강화하는 중요한 루트로 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섬서성은 훌륭한 청년 공무원과 청소년 총 220명을 연이어 8회 조직해서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금년 9월, 섬서성의 차 산지 정부와 업체의 관련 책임자를 조직해서 한국을 방문해서 토양재배, 차잎 재배 채취, 다원관리, 차 제품 심가공 등 내용에 대해서 교류 시찰을 실시했습니다.

활발한 인원 교류는 민간인 기초를 끊임없이 다지면서 우호관계를 이어나가고 발전시켜 나갈 후계자를 육성해내고 있습니다.

금년 5 월 22 일부터 24 일까지, 섬서성은 따오기의 힘을 빌어 “따오기의 고향”인 섬서성 한중시 양현에서 “제 1 기 따오기 국제간 포럼 ”을 개최했는데 중국, 한국, 일본 등 따오기가 서식하는 서식지 대표들이 따오기 보호와 관련 산업 협력에 대해서 심도깊은 교류와 검토를 진행하면서 공통된 인식을 갖고 합의에 달성했습니다. 한국은 2008 년, 2013 년에 두차례를 걸쳐 중국이 증여한 4 마리의 섬서 따오기를 받은 후 지금 총 313 마리의 따오기를 번식해냈으며 따오기는 섬서성과 한국사이의 “우정의 사자 ”로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섬서성의 문화관광은 “문화 섬서 ”란 자리매김을 둘러싸고 문화와 관광의 융합을 심층 추진시키고 글로벌화, 중국 스타일, 섬서의 맛이 넘치는 국제 일류의 문화관광센터와 국제관광 중추를 구축하면서 섬서성의 3 개 경제 발전을 크게 추진시킬 것입니다. 즉 첫째, 섬서성의 풍부한 역사적 문화 자원을 통해 독특한 역사, 종교 민속 문화 등을 개발, 이용하고 연안혁명기념지 흥색관광구, 건릉관광구, 사마천사, 호구폭포 등 중점 관광구의 질과

서비스 질을 끊임없이 조성, 업그레이드시킴으로써 중외 관광객을 위해 질좋은 관광 제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둘째, 문화 보호와 전승을 둘러싸고 관광도시, 관광 특색 마을·진과 문화관광거리를 구성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시민과 관광객들이 디테일함 속에서 문화의 매력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셋째, 문화관광 요소를 둘러싸고 섬서요리문화를 발굴하면서 문화창의관광구, 공연 프로젝트와 문화창의 상품을 출시합니다. 넷째, “문화섬서”란 전체 이미지를 둘러싸고 서안 실크로드국제관광박람회와 실크로드국제예술절의 결합을 추진시킴으로써 세계 유명한 국제관광절 브랜드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청명 황제릉 제사, 실크로드 국제영화제, 한중유채화절 등 문화관광 활동을 잘 개최하고 “실크로드의 시작점, 병마용의 고향” 등 문화관광 브랜드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킵니다.

다음 섬서와 한국의 문화관광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건의를 제출합니다.

**1. 협력 메커니즘의 역할을 발휘합니다.** 우호도시의 상태화, 경상화적인 교류를 적극 추진시키고 우호도시간의 다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심도깊게 전개하며 우세를 상호 보완함으로써 우호도시사이의 왕래의 질을 향상시켜 중한

지방정부의 우호 교류와 협력을 더욱 힘있고 온전하고 멀리 나아가도록 추진시키는 동시에 중일한 관광부장회의, 문화부장회의, 동아지방정부회의, 동북아지역 지방정부연합회 및 중한 성장과 지사회의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각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 중 발생하는 중대한 문제점, 중대한 정책에 대해 검토, 협상하고 발전기회를 공유합니다.

**2. 문화관광시장의 규모를 확대합니다.** 홍보, 소개를 강화하고 다국적 문화관광 제품과 명품 코스를 공동 발굴하고 섬서와 한국 각 지역내의 문화관광 인지도와 시장 점유율을 끊임없이 확대합니다. 문화관광, 레저관광, 연학관광, 자주관광 등 방식을 진입점으로 해서 섬한문화관광 시장을 서로 바꾸고 관광객을 서로 보냄으로써 양국의 문화관광의 발전을 공동 추진시킵니다.

**3. 관광 개방을 가속화시킵니다.** 양국 정부 수뇌의 양자 협력 발전 추진의 공통 인식을 관철하고 보다 편리하고 보다 효율적인 비자정책을 추진, 실시하며 관련 수속의 규범화, 간편화를 실시합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등 금융 투자 플랫폼을 이용해서 중대 프로젝트의 연결을 강화하고 관광 기초시설, 서비스 시설과 관광제품 시스템을 완선화합니다. 외국자본 여행사가 중국 출국관광 업무를 경영하도록 오픈합니다.

**4. 인문교류를 심화합니다.** 나라지간의 교류는 민간인의 만남에 있습니다. 인문교류는 영원히 민간인 왕래의 화제이자 지방정부지간의 교류와 협력의 중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섬한 인문교류의 심화는 피차간의 민심이 통하는 것을 촉진시키고 있고 또한 상호간의 신뢰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삼성전자의 백억달러에 달하는 플래시 기억장치 프로젝트의 섬서성 진입은 바로 이와 갈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경제 무역 교류가 날로 빈번해지고 있는데 섬서성과 한국의 왕래는 현재 이미 “당신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당신이 있는” 서로 의존하는 태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중한 문화의 유사성을 이용해 쌍방 인원 왕래, 중소기업 협력, 관광정책 연구, 발전전략 등 방면에서의 실속있는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우호관계의 내용을 보다 풍부히 합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섬서성과 한국의 우정은 역사가 아주 유구합니다. 섬서성은 한국 각 지방정부와 함께 노력해서 우호적인 성과 도 관계 구축을 유대로 섬서성과 한국의 경제, 청년, 문화, 관광 등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의 잠재적 자원을 공동 발굴하여 교류의 루트를 개척하고 실속있는 협력을 심화시켜 시대의 흐름에 맞게 공동 발전을 실현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는 한국 지방 각계 인사가 섬서성에 와서 시찰, 교류를 하고 발전기회를 공유할 것을 진심으로 초청합니다. 섬서성에 와서 중국 문화의 기품을 맛보고 온화하고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 2 회 중한 성장과 지사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